좀비 스토리 게임

주인공은 한 건물 안에서 눈을 뜨게 된다. 빛을 따라 문을 열어보니 쓰레기장…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창문에 몸을 비춰보니 몸이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결국 내가 좀비가 되어버린걸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이 곳은 너무 더운 것 같으니 부패되기 전에 어서 시원한 북쪽으로 이동을 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 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아무도 없는 숲 속을 지나 아무도 없는 도시에 도착하였다. 식량을 찾아볼까? 아 맞아 나는 음식이 필요 없지. 좀비가 되었는데도 계속 걸으면 힘이 드는구나. 일단 치료든 뭐든 몸이 썩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열기와 물은 피하도록 하자. 방금 소리 뭐였지? 어디서 들리는 것 같아.

오른쪽에는 불빛이 보이고 왼쪽에는 어둠만이 가득해 어디로 가야할까

[1. 밝은 곳 선택 2](#_Toc178957238)

[2. 어두운 곳 선택 3](#_Toc178957239)

1. 밝은 곳 선택

[공터] 로 이동

모닥불이 있네? 분명히 이 곳에서 소리가 났는데… 어디서 난 거지?

* 큰 상자
* 나무 판자
* 나무 뒤
* 천 조각 더미

아이잖아? 좀비가 되어버렸구나. 너도 이곳에 사람이 있을까 해서 온거니? 왜 울면서 나를 쳐다보는거야.

아이를 데려가야 할까?

1. 아이를 데려간다.

이리 손 줘 같이 가자. 어린 아이가 혼자 있기엔 너무 위험해.

나무 위에 인형이 걸려있다.

1. 인형이 필요한거야? 내가 가져와줄게

팔이 크게 긁혔어… 상처가 낫지 않을 테니 어서 이동해야해

(아이의 호감도 상승)

1. 시간도 없고 다칠 수도 있어, 아쉽지만 두고 가자

…

[다음 장소] 로 이동한다.

1. 아이를 두고 간다.

나 혼자도 지금 살아남기 힘들거야. 내가 굳이 책임질 필요 없잖아.

아이가 울면서 뒤따라오다 결국 물에 빠져버렸다.

구해야 할까?

1. 구한다.

하… 위험하잖아! 그냥 따라와.

1. 구하지 않는다.

…

[다음 공간]으로 이동

1. 아이를 죽이고 귀금속을 빼았는다.

손에 반짝거리는 무언가가 있는걸 봤어. 일단 나에게는 식음료가 필요 없으니 돈이 될만한 걸 챙겨야해.

[다음 공간]으로 이동

1. 어두운 곳 선택